

광주시, 아셈 문화장관 회의 준비 총력



각 분야 지원단, 오늘 중간점검
외국인 문화투어·공연행사 마련

광주시가 오는 6월 열리는 제7차 아시아-유럽(ASEM·아셈) 문화장관 회의 준비를 위해 총력을 모은다.

광주시는 11개 실·국, 20개 실·과가 참여하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하고, 28일 소회의실에서 아셈 문화장관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실·국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국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손님맞이 도시환경 조성 방안과 남도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각종 공연행사·문화투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7개 분야로 행정지원단을 구성했으며 대외홍보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시 홍보관 개설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분위기 조성을, 문화관광반은 아셈 문화주간 설정(6월20일~25일)을 통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맡는다.

숙박·보건반은 숙박업소, 식품 집객업소 위생점검, 관광정보반은 주요 진·출입로와 시가지 정결 유지, 문화전당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금남로·광주천 교량 야간경관 조성업무를 담당한다.

교통대책반은 교통·도로 시설물 정비,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의료·안전



오는 6월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문화장관 회의를 앞두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국장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광주일보 자료사진>

반은 감염병 예방관리, 테러·화재 등 안전 관리 대책, 시민참여반은 기초질서캠페인 전개,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원하는 등 2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최하는 '2016 제7차 아시아-유럽(ASEM) 문화장관 회의'는 '문화와 창조경제'를 주제로 오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아시아, 유럽 53개 문화장관 등 대표단을 비롯해 취재진 등 600여 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선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행사"라며 "광주를 또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로 남도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물론, 문화전당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SEM은 싱가포르가 1994년 10월 창설을 제안하고 한·중·일과 ASEAN 및 EU 등의 동의를 거쳐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출범했다. 회원국은 아시아측에서는 ASEAN 10개국, 동북아-남아시아(NESA) 10개국 및 ASEAN사무국, 카자흐스탄 등 20개국이 참여했다. NESA 국가는 한·중·일·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몽골, 등이다. 유럽에서는 EU 28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EU 집행위 등 31개국의 참여하고 있다.

1996년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는 대한

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유럽15개국 및 EU 집행위원회 등 25개 국가와 EU 국가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세계 정치·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유럽, 북미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최대 지역간 협의체로 위상을 굳혀왔다. 모두 4차례 걸쳐 회원국이 확대돼 53개 회원국(EU 집행위, ASEAN 사무국 포함) 참석하고 있다.

ASEM의 비공식적 협력의 원칙에 따라 상설화한 사무국을 두지 않고 개최국 및 조정국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다. 2년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정상회의를 교대로 개최하며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조정국회의 등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민센터서 '간편 출산 서비스' 받으세요

출산 관련 모든 서비스 신청이 한번에 처리된다.

광주시는 출산 가정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의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생신고 시 하나의 통합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1일부터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한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관련 민원을 크게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15일부터 광주시 서구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에 확산 시행키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자치구 공통 서비스와 자치구별 자체 서비스로 구성되며, 공통서비스는 가정 양육수당, 둘째 이상 출산축하금, 셋째 이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이다.

자치구별 자체 서비스는 동구의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문자 서비스, 모유수유

출산 관련 자치구 서비스

동구	영유아예방접종 안내문자
서구	모유수유클리닉
남구	쓰레기봉투 제공 출산축하카드 발송
북구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클리닉, 서구의 영유아예방접종, 모유수유클리닉, 남구의 쓰레기봉투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예방접종 안내문자 발송, 북구의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광산구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모유수유클리닉 등이다.

이 밖에 출생 관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자치구별 제공되는 서비스 목록과 안내문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시민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출연기관, 타 기관 간에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중 구조 훈련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119구조대원 72명을 대상으로 특수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대구, 자동차산업 정부 지원 함께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마련...물류 체계 등 기술·정책 연구 지속

광주와 대구가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광주와 대구시는 지난 24일 남원시 지리산 일성콘도에서 미래형자동차산업의 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기획TF팀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양 지역의 전략산업인 수소 자동차(광주),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분야를 공동 육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물류시스템 개선을 기본 목표로 해 지난해 12월22일 개통된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고, 수소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정책적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을 뒷받침해줄 특별법 초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체계화한 뒤 올해 안으로 제20대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윤정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이 체결한 '달빛동맹 상생협력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동사업기획TF팀은 지난 2월말 양 시의 주력산업인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구성됐다.

광주와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뜻을 같이한 이유는 두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역할을 거리가 자동차산업이기 때문이다. 양 시는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이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변화에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 자동차산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市, 기업체·공동주택 보일러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지원

광주시는 중소기업,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녹스 버너는 연소 시 화염온도와 산소(O2) 농도를 낮추고, 연소가스 체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버너로, 일반 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30~50% 저감시킨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이며, 5억7800만원을 지원해 저녹스 버너 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3대까지 용량에 따라 대당 400만~4000원부터 1429만4000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5개구 '안전도시 만들기' 한목소리

광주시가 광주 5개 구청과 협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시청 1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자치구 재난안전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시민안전이 최우선 가치 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와 자치구 재난안전 관리 부서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 안전 위해 요소 전반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등 계절적·시기적 주요 재난안전 현안업무를 점검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2016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지역안전지수 향상 노력 ▲안전신문고 활성화 ▲2016재난

관리 실태 점검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 등 올해의 구체적인 재난안전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현안 과제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정비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운영 훈련 실시 ▲2016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내실있는 준비 등 재난안전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준비 태세를 구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간 재난안전 상생 협력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 강화와 향후 광주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제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개피할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